



wooden@yonsei.ac.kr
web.yonsei.ac.kr/ysefm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올림

21대 총여학생회



2009 Calendar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6 June	7 July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0 Calendar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6 June	7 July	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Weekly Plan

Sun 29

Mon 30

Tue 31

Memo

여성노동권

우리는 학내 곳곳에서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일하는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학내 미화직 여성노동자들은 한 사람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라기보다는 청소부, 마중아, 로서, 여거지여, 그녀들의 노동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 언젠지 고쳐 가능한 소모품으로 치부되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그들은 회사의 의지에 따라 일차리가 좌지우지되는 고용불안정과 한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왜 그녀들의 노동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의 생활은 또 어떤가요. 한국의 학벌 사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녀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적 위치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대생으로서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질파걸'이 되어야 하고, '질파걸'로 인정받아 가짜스로 취업한 이후에도 고용불안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남자 동료들처럼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평가되고 성적 대상화되기 일췌이며 여성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각종 감정노동(항상 미소 띤 얼굴을 유지하는 것 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서열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경쟁위기의 순간이 오면 여성은 언제나 일차적인 해고의 대상이 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노동을 보조하고 대체하는 부차적인 노동일뿐이기 때문입니다.



www.genelabkathon.com

한편 여성노동자들은 재생산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사노동, 감정노동을 떠맡으면서 언제나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에도 그녀들의 가사노동, 감정노동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는 비가시화된 노동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직종에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정도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종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나 노동시장에서나 감정노동은 마치 '여자가 더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동시에 '여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질파걸' 아니 '여성상위사태'니 '여풍' 아니 뭐니 하는 말을 할도 주워섬기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이렇듯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 억압의 굴레 속에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갇혀 일하며 시달리며 가정에서는 혼자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노동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계급관계, 성별관계와 함께 여성노동자가 처한 이중 억압의 현실을 폭로하고, 한 사람의 주체적인 노동자로서 자아실현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세대 비정규 미화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억압을 간담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여성노동자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배제하는 현재 사회구조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Weekly Plan

Sun 26

Mon 27

Tue 28

Wed 29

Thu 30

Memo

우리 함께 '장애를 가진 여성'을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었을 때, 비정상에 대한 차별이 시작됩니다. 몸의 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건강함'과 다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적 영역의 일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되었습니다. 여성애인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상체가 아닌 모든 성체는 '변태'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해서 '정상'으로 편입할 것이 필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관계는 누군가를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물쭈물하고 열등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고 위계를 만드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차이를 여성주의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비장애인의 '신체 건강함'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만을 보아도, 우리는 당연히 열려있어야 하는 건물에 장차언어가 없는 김의실에서 문자지원이 되지 않는 강의를 듣고 합니다. 이렇듯 '건강'한 몸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몸의 구성이 '다른' 것을 '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를 비장애중심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것을 불면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시설을 더 만드는 '보상'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와 소수의 논리로 재입하고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격리하여 이 사회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다시금 차별을 만듭니다.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 여성은 이러한 정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중 억압을 받고 있으며, 장애 혹은 여성 어느 하나의 억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차별을 겪습니다. 무성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편협해지 때문에, 장애 여성이 할 일은 필요 없는 것,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용을 통전되어 몸을 대하는 행위가 성폭력이 되더라도 저항할 수 없게 합니다. 가족들로부터의 억압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혁명하고 살 수 없는 장애 인이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박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만드는 차별적인 인식은 다양한 폭력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공공연히 이야기되지 않아 비가시화되어 있습니다.

2세대 장애여성회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장애 여성 운동을 시작하여, 장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기반으로 비장애중심성과 남성중심성의 공도를 폭로하고 사회에 안전한 폭력성에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www.2002.kr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r 28

Fri 29

Sat 30

Sun 31

'에코페미니즘' 이 무엇일까요?



www.marxist.co.kr

여성의 고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문란한' 일꾼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람도, 생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도, 토지나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도 남성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 영역에서 배제된 여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왔을까요? 여성은 먹거리 관리와 양육, 조개 채취와 같이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과 가까운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었죠. 이처럼 개발주의 성장과정의 수혜자는 남성이었지만, 그에 따른 자연 파괴는 여성이 채광한 노동과 가사 노동을 통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중심성과 여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남성중심성의 공모에 문제제기합니다.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과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고 자연과 여성에 대한 착취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물질]에서는 내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해드립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성찰협동조합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인 고민에 기반한 소비와 실천을 학교에서 만들어가려 합니다. 또한 대중적 청터 기간, 학생들이 사용하는 개인이나 팀과 같은 식재료를 가져온 지역농민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등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줄거은 활동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페미니즘 운동 힘을 꾸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함께 세바퀴도 하고 재밌는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렇게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관계맺음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Weekly Plan

Sun 28

Mon 29

Tue 30

Memo

反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물리적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으로, 또한 성기 중심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어왔던 고통보다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성기결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시되고, 경제적으로 성기결함이 행해진 공간이 아닌 이상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 개념 정의와 사건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고통과 감정을 배재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 가해자의 말이 피해자 여성의 말보다 더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가해자중심적인 시각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식재됩니다.

우리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오히려 의심하고 치단하는 그로 인해 사건해결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지지르기 일쑤인 사건처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건해결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진실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객관성'을 운운하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피해자중심주의가 사건처리과정의 전면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이 이야기될 때 가해자 개인이 중심적인 틀에서 성폭력을 행했다는 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특정 가해자 개인의 몰상식함보다는 오히려 일상 속에 존재하는 성별관계관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폭

력입니다. 성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계화된 성별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한 성이 다른 성에게 그 권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극단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포르노그래피, 상업적 여성 일상공간에서의 물고기 설치 등을 떠올려볼 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성별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 만연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의 성폭력 사건 역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폭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성폭력 사건 및 재구성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성별관

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건으로서의 성폭력만 강조된다면, 반성폭력 실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 물질)은 가해자 중심의 성폭력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여 합니다. 또한 성별관계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일상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안적 성폭력과 사익적 성폭력이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성애중심주의 하에서 여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동성 간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은폐되어왔던 성폭력 피해들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있을 반성폭력 주권에는 강압적 자보건 등을 통해 학제 반성폭력에 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상, 물질)은 너무도 공고하게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성별관계구조를 타파하는 적극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Weekly Plan

Sun 26

Mon 27

Tue 28

Wed 29

Thur 30

Fri 31

Memo

에 이 르 성 목 록

데이트-성목록-? 도무치 초점이 안 되는 두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이 나빠서 사이코한데 걸려든 경우거나 알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통념과는 달리 성목록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알아나는 경우보다 아는 사람, 가깝게 자라난 사람에 의해 알아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트 성목록은 데이트 중에 알아나는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 모두를 일컫습니다. 서로 좋아서 데이트하는데 어떻게 성목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성 연애의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이성연애의 각본 아재에서는 성행에 따라 성욕함이 나누어지고, 이것이 로맨틱하다고 여겨집니다. 남성이 남자답게 주도하고 여자에게 이것저것 사주는 관계에서는 권력이 남성에게 쏠리게 됩니다. 또한 남자가 작각적으로 리드하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맛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요하는 게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대가 싫다고 해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이 용인되고, 이것이 데이트 성목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성목록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설정한 이성연애 각본 아래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연애 각본이 중심인 관계에도 적용되어 동성 간에도 데이트 성목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목록은 서로 알고 자라난 관계 특히 매우 친밀하다고 여겨지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사람한테 성목록을 당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냥 혼자서 참고 넘겨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사랑으로 불러선 안 되겠죠.

데이트 성목록은 사랑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말쑥한 성목록입니다. 연상, 몰입에서는 이제쯤 기사회각이 없었던 데이트 성목록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성목록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www.maricafstudio.com

Sun 23

Mon 24

Tue 25

Wed 26

Thu 27

Fri 28

Sat 29

Sun 30

Mon 31

소통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여성주의

남성중심적인 학내에서 여학생으로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은 매우 부족합니다. 반향에서 당해 피우는 남자 선배 때문에 불편한어도, 수업시간에 교수가 기운 나쁜 일을 한어도, 관료관제로 인해서 쉽게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런 불편함과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은 나 홀로 겪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부경제 사회는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숨겨왔습니다.

《일상, 물감》에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이야기 피아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회가 숨겨오려고 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으로써 여성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여성주의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 물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여학생수업 자체도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학생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들이 이야기를 일상에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 물감》에서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동아리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관계 나. 팔'과 같은 주제에 관해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을 담은 이야기를 풀어낼 것입니다. 매체도 발간할 예정인데도, 매체를 통해서도 학내 곳곳에 여성주의적인 목소리를 전하여 일상을 유쾌하게 뒤집어줄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도 진행할 것입니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접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여성주의적인 고민을 나누고 싶고,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방학에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고 홍보도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학기 때는 여성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11회 여성제가 될 것인데도, 여성제는 여성주의에 대해 재차있게 풀어내고 사람들과 피드백을 통해 서로 힘을 받는 즐거운 문화제입니다. 함께 소통해나가고 싶은 분들 언제나 환영이에요!



Illustrated by Kana Hara

Weekly Plan

Sun 27

Mon 28

Tue 29

Wed 30

Memo

여성주의 문화를 만나자!

여성주의를 접하고 싶는데, 주변에 여성주의를 같이 이야기할만한 사람도 없고, 입문서에는 다 어려운 말들만 가득할까 걱정이 되는 당신을 위한 추천 책 읽기 귀찮아하는 친구들에게 가볍게 여성주의를 소개하고 싶은 당신에게도 추천 여성주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해보아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www.wffs.or.kr) 2009. 4.9~16

매년 4월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립니다. 주로 신촌역 4번 출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영화관 '아트레온'에서 개최되나, 학교에서도 가깝죠?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여성의 시각으로 살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영화제에서는 우리의 몸, 정체성, 관계맺음, 여성들의 일과 같은 주제들을 다른 단편/장편 영화를 만날 수 있고요, 여성들의 삶을 만나거나 풍조에 공명했던 여성주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평정한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성영화제 기간은 매일매일이 신난답니다.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http://www.unninet.net>)

인터넷 창을 띄우는 순간, 인터넷 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여성을 비하하는 글이나 성차별적인 글들에 숨이 막히곤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마초성에서 벗어나, 여성친화적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언니네'에 접속해보세요. 여성들이 즐겁고 안전한 곳, 여성이라는 것이 장이 아니라 기쁨과 호소함이 될 수 있는 곳을 지향하는 사이트입니다.

언니네에서는 블로그 행위의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서 다른 여성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이야기를 써보려할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여성주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언니네 워크 운영자들이 준비한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이 쌓아온 여성주의 지식들을 발견하고, 최근 여성주의 활동들의 동향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illustrated by sunniss

Monthly Schedule

Sun	Mon	Tue
4	5 새학년의 날	6
OO년 출시한의 커리어넷을 지키는 잊지 할독서 및 기타활동*		
11	12	13
		연세간 연방 제출
18 ST	19	20
	2009-국립기 종단시험(24일)	
25	26	27 제1차 날
	베스스 41명의 문공이 실례 ***	

● 2009년 10월 4일, 연세간 출시한의 커리어넷을 지키는 잊지 할독서 및 기타활동을 주관할 것과 부당한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방송비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개하였다.

●●● 1992년 10월 28일 주한미군 마을 베스스 리 마을이 가리온 상해에 여상인 문공이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이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즉시 재이면서 문공이여는 연세간인 '말공주'에서 갑자기 소멸한 '진독의 딸'로 바뀌게 된다.



Wed	Thu	Fri	Sat
	1	2 새학년의 날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8 제1차	9 제1차	10
	학기 1/3선		OO년 연방유치 학식 제정**
14	15 새학년의 날	16	17 제1차 날
21	22	23 제1차	24 제1차
28	29	30	31
		베스스수자일과 및 지명 지지를 위한 긴급 전개 소집 ****	

●● 2009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연세유치 학식이 제정되었다. 교수, 교직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학칙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

●●●● 2007년 10월 30일 국가안전위원회 사건단계가 연세유치 4년간 소년들을 구성한 '자랑금지급 제정'에서 상지자, 학제, 범죄, 출신국가, 언어, 범죄연계,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7개 소항이 제정되었다. 이에 여러 단계를 사건들이 긴급 '연계'를 통해 이를 지지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활동은 향후 베스스수자 제정 반대 투쟁의 핵심으로 이어졌다.

Weekly Plan

Sun 25

Mon 26

Tue 27

Wed 28

Thur 29

Fri 30

Sat 31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 같이 놀아요!

공공연하게 오가는 윤곽과 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대체되는 남성연대. 그녀들을 위해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아닌, 과학 공동체 내에서 남학생은 주도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열심이 높아져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인 남학생들의 남성연대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반면, 여학생들은 외로이 앉아 가능성 등으로 저를 감당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소외되기 쉽습니다. 학내 공동체가 남성중심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생활만으로 구분지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생각했을 때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그녀들이 느낀 불편함은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불만함으로 이어져 나오지 않고, 적을 하지 못한 그녀들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함께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불편한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그녀들은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을 꾸리곤 합니다.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에서 그녀들은, 자신의 경험이 사소화되거나 은폐되지 않은 채 온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은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하고 균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지지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여성-과학인 윤곽과 실이 자주 들리고, 밤새 술먹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술자리에서 느꼈던 불편함, 공간 분리도 안 되는 MT장소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나누면서 함께 분노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 경험들을 담아 만화나 음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시간에 웃음 한바탕 날리고, 남성과 전유물이 된 농구코트를 탈탈해서 즐겁게 뛰놀리며 몸을 움직일 수 있기도 합니다.



2세대 총학생회는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과 다양한 활동과 그 의미를 긍정하며, 소모임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끌어온 소모임들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의 고민이 맞닿은 지점들을 찾아내고, 힘을 북돋아 주는 관계를 꿈꿉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을 꾸려나가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임을 만드는 데부터 이어나가는 데까지, 수 많은 공과에 시달리고, 역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도 있습니다. 2세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상에 정보 공유하거나, 각자가 겪어온 발자취를 남기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학내 곳곳에서 여성주의가 태어나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모임 네트워크의 활동은 일상 곳곳에서 여성주의를 끌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주의/여학생 소모임을 새롭게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힘이 될 것입니다.

Weekly Plan

Sun 29

Mon 30

Memo

여학생 교육권? 학내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적 있으세요?

수업을 듣다가 '여자는 지고로 이해하지'라는 말이 난감함이 뛰어나워서 분노한 적 혹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호모포비아적 발언이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당황한 적 이런 것들은 내년 너무 불편한 경험이지만 막상 내가 어떤 학업을 중시 결정할 수 있는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지요. 겨우 몸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 때 참 불편했다고 호소해도 '너 너무 사소한 거에 트집 잡는 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많은 사람들은 수업을 듣는 데 정말 중요한 건 교수의 강의 내용이지 이런 '사소한 농담'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보편적인 대의'에 가려져서 누군가가 느낄지도 모르는 불편함은 사소화되고 예민한 개인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내에서 여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의 예에서와 같이 불편함을 마주하더라도 그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라고 자신의 경험을 일축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모두의 문제가 아닌, 나만의 것이라고 여겨 지는 불편함에 '교육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내 구상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나의 경험이 '지극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나가기다 보면, 나와 다른 이들의 경험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이야기가 공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구요.

『일상, 몸집은 '여학생 교육권'을 열심히 외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과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강의 실현가능성에 반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교수 반성특목 교명 이 수가 보다 실용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성 평등'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문항으로만 존재하는 강의평가 항목이 확충되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힘이 나도록 운동하는 것은 '여성스럽지 않다', 방사도록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은 '장소하지 못하다'와 같이 여성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깨나갈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어가며, 여자 차위 사실이 개선·확충되도록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소곳한 자세를 사회적으로 요구받으면서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던 여성들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교육권'의 범주안으로는 삼갈 수 있었던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해 나가기 위해 여러분과 지속적인 소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내 곳곳에서 제한되고 있는 여학생 교육권을 총여학생회와 함께 이야기해나가고, 연대 거대하고 있을게요.



Sun 27

Mon 28

Tue 29

Wed 30

Thur 31

Memo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생활)이 그게 뭐예요?

생활에 가까이하고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거대 자본에 포섭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조합원들은 각자 '취미'를 내고 출자금이라고 불려요! 그 출자금을 통해 생활 내부의 복지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고민하지요. 예를 들어 생활에서는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한꺼번에 주문(공동구매)하여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상점한 재료를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한 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구매는 또한 복잡한 유통 사슬 속에서 만들어지는 착취에 대항하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천들과 함께 생활에서는 건전한 소비문화란 무엇인지, 생활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과 소통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의 생활들은 생태적인 소비 과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최대한 민주적인 구조를 갖추고 조합원들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생활은 어떤가요?

맛나볼 고물쌀, 부들쌀, 참전선, 순기름, 달걀심, 보양쌀, 사탕수수 아메리칸식 동동콩 이 생활은 학교 생활이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혹시 여러분이 생활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세대에서는 2004년 이후 입학생활은 자동으로 생활에 가입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등록금 고지서에 5000원의 생활 출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지만 자동가입이 되더라도 학교 생활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활 이사회, 생활 대의원 총회와 같은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회의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조합원이 오해의 손에 걸릴 정도죠. 따라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YMCA 구성원들은 학교 생활의 비민주적인 소통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여, 학생 조합원들의 의사가 생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생동적 생활 만들기'를 고민하는 YMCA는 차년 선거에 생활과 관련한 공동 공약을 제안했고, 입성, 물량에서는 에코페어, 에코페어, 에코페어 관련해서는 한 달 앞에 실천 공을 전조해주세라 운동을 생활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자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함께 생활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공약 내용입니다.

[2대 총학생회 공동공약]

1. 연세대 생활협동조합 학부 학생 대표인 학생 대의원과 학생 이사는 학부 학생들의 편의를 보호하고, 생활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생활에 관한 의사결정 및 논의과정에 일반 학생 조합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1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결정 내용을 자보 및 학내신문을 통해 학생 조합원에게 빠짐없이 공개한다.
 - 2 개별 학생조합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생활에 관한 일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생활학생위원회 구성'에 일한다.
3. 생활 대의원 교육을 30명씩하고 세바나 OT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조합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 용어 설명

- 일반 학생 조합원 학교 생활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2004년 이후로는 전학하여 입학한 학생 모두가 자동가입되므로, 자비 본인 대학에서 일반 학생 조합원인 셈입니다.
- 학생 대의원: 학부에서 생활이 운영 되는 민주적인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차차한 헌법적으로 일반 학생 조합원에게 수가 많은 연세대 생활에서는 차차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학생 조합원을 대표할 학생 대의원이 존재합니다. 학생 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위해 직접 선출되지만은 아니라 총학생회장이 총 몇 명을 골라내게 됩니다.
- 일반 학생 조합원: 생활에 대한 학생 조합원의 의견을 요구하기 위해 생활 학부 위원회는 2대 존재합니다. 현재 학부에서는 총학생회 학생대의원에서 생활 학부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학부 차장: 생활 이사회 의회 총 학부 및 대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학부 차장은 구성을 보통 총학생회 공적자 2명, 학생대의원에서 추천한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생활에 관한 운영에 있어서 대의원으로 일한 권리와 임무를 지닙니다.



Sun 24

Mon 25

Tue 26

Wed 27

Thur 28

Fri 29

Sat 30

Sun 31

이성애중심주의가 뭐냐?



Illustrated by yobok, korean

이성애중심주의는 모든 여성을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모든 남성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왜 '~주의'라고 말하는지 궁금한가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는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gay),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lesbian)과 같은 동성애자도 있고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bisexual)과 남성이긴 여성이긴 사람에게 성적인 끌림을 가지지 않는 사람(asexual)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스스로 정해놓지 않은 사람(Questioning)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여성이라면 남자친구, 남성이라면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데만 이 일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성애중심적 문화 속에서 '비 이성애적인' 것은 마치 없는 것 처럼 만들어집니다. 이성애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애는 정 신병이나 '변태'처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이성애로 규정할 일은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을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력을 만듭니다.

물론 이성애중심주의는 비이성애자들에게 대한 차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에게 여성스럽지 못하게 그게 뭐냐, 남자는 그러는 것 아니냐'와 같은 말들은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그에 관해하게 맞추어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이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성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지되거나, 그 성별에 요구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한대어지는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성별 이분은 다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transgender)과 남성과 여성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bisexual)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차별하게 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말씀, 물질은 이러한 성별 이분에 만드는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며, 이들이 만들고 있는 폭력을 끊임 없이 폭로할 것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파헤쳐 나가며,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여성주의적인 관여권을 지향합니다.

Memo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문호계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문호계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인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제로서의 여성과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사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시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재발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 해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어마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 있습니다.

책문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서공간에 앉아 책을 읽기를 택하실 수도, 대어목책에 도서관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보기를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관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페미니리 홍보 팸자보에 첨부된 도서관쪽 파일을 보고 전화로 요청하시면 총학생회 집행부가 학생회관 앞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여성주의에서 여러분과의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 함께 해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 무얼 할 수 있을까?

Q. OT/세미나에서 일찍을 줄이길 대신 일일자를 하겠습니까?

A. 세리브거는 하루를 줄지 않을 수 있어요!

Q. 개황화 주선, 양이나, 개안을 대할 때로가 아니라 개안을
지역의 농민에게 구입한다면?

A. 농민에서 대할 때로까지의 중간 과정을 줄일 수 있어
표(농민에 대한 인연)를 만들 수 있죠.

A. 표할 후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농민을 직접
회하고 농민 사업을 직접하는 다국적 농민회이며 필요
에 따라할 수 있죠.)

Q. OT에서 현안을 살피길 대신 제법일을 해보는 건가요?

A. 육식을일후지를 찾아서 바로, 간헐, 개관을 위해 개관을
공식에서 문화적 하는 공식의 농민에 반대할 수 있죠.

같이 고민해 보면, 더 신나고 멋진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생겨나겠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우리는 참 많이 사고, 먹고, 버립니다. MT에 가서 먹는 삶장에는 공장식 농
장에서 길러지는 돼지고 그에게서 이문을 뽑아내는 산업자본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내
개관을 알아버리는 일화를 종이컵에는 필드를 만들기 위해 길러내는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 사라져 건조해
지는 우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농민도 보입니다. 2007년 대통령 3일만, 우리들이 주점에서 사용한 1.5톤 트럭
4개 분량의 일회용품은 아직 버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에코페미니즘적으로 해를 바라본다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혹은 돈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배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인간중상성과 자연의 파괴로 인한 고통을 여성 개관한 이,
제3세계 농민과 같은 약자에게 감당하도록 만드는 남성중상성의 공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여어 함께 하고 싶지만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잘 몰라서
걱정이 되신다고요? 괜찮아요, 세미나를 통해 몰랐던 것을 하나하
나 함께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생태적인 실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같이 잘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참여하는 학
생자치활동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위에서 말한 OT/
세미나 때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적 주점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하기와 같은
움직임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팀 활동으로 생태적인 MT, 농장을
매뉴얼에서 많은 자치단위와 공유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지역농민과의
직거래를 기획하고 지속적인 연대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팀
에서 함께하다보면 어느새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일거리에
만들기, 도시 속 생태공동체 범용하기와 같이 힘 있는 활동들을 함께하면서 일
상의 고민을 나눌 수 있을테니까요!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에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함께 고민하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내가 사는 학교,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려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 함께 해요^^



Illustrated by Gwenda Hester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매일 행복한 관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날 줄밖에 모르고 넘겨가려는 합당하고 불편한 경험들이 너무 많지요.
그 사람의 성향 없는 한 마디, 그 공동체의 말도 안 되는 말식들,
나의 경험을 식재하고,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너무도 남성 중심적인 공동체들,
관을 수록 많이 버지고, 질리고, 분노하고,
함께 살아가는 너무도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문제제기 한 마디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혼자 삭힐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물갈 때마다 물어내는 자신과 고민과 문제의식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감할 나누고, 함께 살 공간은 필요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야기해나가기면서, 또 문제제기하면서
그렇게 같이 자신과 할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다양하게 여성주의 이야기를 들어나가는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주의/여성학 소모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고, 공적공적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서
많은 일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여성주의 영화 예매, 여성주의 레터나 모임, 여학생 농
구 소모임 등 여러 소모임들이 모여 있구요. 불확실한
소재라도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었
어요.

마지 못하게 못했지만,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
고 있는 소모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여성주의적인 고민을 풀어내려는 소모임을 꾸리려
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모임 네트워크
라는 여러 소모임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자리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고민과 힘 나누면서 언제든가요!



yell.com

소모임 네트워크 물집: club.cyworld.com/cocktail2009

여러분은 생각, 행동하는 주인관

일상, 물집

이-야-기-공-간

총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01
일상, 물집은 여러분과 2009년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02
총여학생회와 친해지기	03
성폭력이란	04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06
내 몸을 편안하게 하기	09
월경이야기	11
월경주가 달려	13
내 몸의 주인은 나! -성지식 알아보기-	15
《학내여성지도》 여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18
설명하면서 폭로하고픈 학내 건물별 장애 시설 제 2탄	21
이런 영화 어때요?	25
여성주의 도서 소개	26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원 연대, 여언자언 에 참여해요!	30
우리만의 놀/게/찾/기	31
학내 친화번호	32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관계 맺기를 바라지요. 공부로 통해 세상을 배우고 싶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문을 사귀고 싶고, 나에게 힘을 주는 벗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 역시 기존의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맺는 관계를 역시 기존 사회의 기부적인 권력 속에 위치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적이라는 단어가 가정에서 남성이 오는 권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강력한 원리로서 보이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한 관계 맺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www.alcamah.com

우리가 대학에서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학내의 다양한 공간과 문화 및 수업, 일상 공동체에서 모두가 행복한 관계맺음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중심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누군가가 타자화되거나 배제되는 관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를 통해 학교를 바라볼 때 그동안 가려왔던 목소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지위를 위해서 행하는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있어 문제제기할 수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수업시간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강의실 안이 성폭력 반대 운동의 목소리로 도르낼 수 있습니다. 과, 반, 동아리에서 이성애중심적인 커플문화, 학년이 높은 신배에 의한 술 강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연애 대상화에 의해 불행함을 느끼고 조롱을 당했던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생명권 지지규약'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성'학내주의를 비판하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적 고민은 단지 불행함을 느끼는 '매일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싶은 내 친구, 선, 후배, 같은 강의실의 학생들이 불행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바뀌어나갈 할 지장이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숨겨져있던 수천만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튀어나와 여기 일상을 말할 수 있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미나, 매체 발행, 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여성주의적 소통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학내에서 여학생 교육권 확보와 반성폭력 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가 겪어온 다른 삶의 경험과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처벌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llustrated by Lysippos

또 성폭력

- 대학의 성폭력, 사회의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일상에 만연한 다양한 폭력적 현상. 단,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입니다. 반성폭력 수단을 통해 자존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반성폭력 자문회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 OT와 같은 행사에서 반성폭력 교양 콘텐츠, 지지규약 자료집 발간, 생명존중 학생 자문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주최할 것입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연세대학교 생물학연구소에서 학생 조형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를 통해 학내에서 생태적인 고민과 관련한 소비와 실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OT/세터 기간 일회용 종이컵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를 가정용으로 제작하거나, 대용량 잔이 기간에 지역 농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들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에서 가능한 생태적인 실천을 제시하겠습니다.
- 예코페어 같은 운동 힘을 위해서 각종 이슈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내 곳곳에서 생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노동을 함께 이야기하자

- 학내에서 여성 노동을 이야기하는 컨퍼런스 같은 장을 마련하여 애로성 해결의 여부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학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연세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연계를 지속하고, 다양한 여성 노동 이슈에 대하여 학내 선전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문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성상을 뒤집는다

- 경제 여성이 그들과 일상을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남성중심적이고 비정규직중심적인 학내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 경제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중심적인 학내 교육환경을 목표로 이들을 운동으로 끌어내겠습니다.
- 학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여성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학내 일문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 받는 일상

- 과반 내 여학생 소모임, 여성주의 세미나 모임, 여성 농구모임과 같은 여성주의여성학 소모임 간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중심으로 여성주의를 좋아하는 다양한 학생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여 여성주의여성학 소모임이 자문을 받자리를 남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모임에 피어내는 여성주의

- 다양한 여성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겠습니다.
- 화상실 소식지, 여성주의 신문과 같은 매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 매월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만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여성학 수업을 열겠습니다.
- 여성주의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축제, 여성상을 열겠습니다.

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 학생들이 강의실안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강의 평가 항목을 수정·확충하고, 교수 반성폭력교양이 선행성 있게 실행되도록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학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학생 사생활을 개선·확충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이 여성학 전공 비전 수업으로 개설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여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를 일문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애·국·상·을 : 오가 천·만·년·기!

종이학생회가 하는 형식에 살짝 살짝 다른 답했다. 그는 분투, 애환이 균을 읽고 가는 부단 분투, 서리가 오르는 사이에 어느새 공감을 나누고 있던 분투, 이 페이지에 침묵 멈춰서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어때요?

종교개혁의 핵심인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요. 음악을 좋아하기가, 춤을 좋아하거나, 그걸 함께 좋아하거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좋아하는 줄을 좋아하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요. 여기 머무르는 이들은 모두 다채롭지만, 모두 마음 한 편에 예수주의 열 감자를 새겨서 각자의 고인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 채죠. 그러고 보면 그 고인들을 종교개혁의 열에서 다채롭게 끌어내렸지요. 예수주의 종교개혁자는 그 열에 예수주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또 열이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모두 저명한 아해게가 찾아오는 했어요.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된 사람도, 함께 임명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총명한 관료는 자문계자"아해게는 이들을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는 사람도, 처음엔 그냥 "조금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하던것을 완곡, 곧 문호에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예쁘기 넘치는 총명한것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나 그 형사 되게 좋아했어요. 나 그 글 읽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한들, 우리 서로 조금씩 다가서기 전해지는는 거 아파요? 물론 전해지는데이 뭐 잊고 가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지고 고안하는는 부분을 위해, 참여학생들과 전해지는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까요?

1. 출제일 문물 투뜨려요!

학연은 인맥과 곧 본색을 얻을 두드러진 총애일이 없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한마디 없거나 반기름이
요. 총애학생회는 총애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에 얽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고 떠들면서 함박웃음, 얼마나 좋을까요.

2. **혹스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저, 웨이브리 이용하려 왔어요.'**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하거든 너무 복스르우사디구요? 그럼 헤어지기를 이용해보세요. 헤어지고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애학생회 집행부나 헤어지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 친절히 이용 방법부터 설명해 주게요. 또 백만이 넘는 여성주의 도서에 몰려있는 것만은 총애학생회에도 친해지고, 여성주의 도서도 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아요. 시종일관 팔리자라는 태세에 있는 헤어지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3. 출어학생회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총여학생회가 준비하는 행사에서는 자주 참가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돼요. 그 곳에 신청해보세요. 일한 프로그램 함께 실행도 보여 어느새 일하면 이수가 온 줄에는 아니자기 가득가득할 거예요.

4. 제 시간도 없고 남태나는 이 열정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길이 형식을 기피하고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학생 수천 곳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광고들을 우상화 실패하고 여성주의에 두 발 모두 똑 딛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형식을 만들어 가는 시도에, 어느새 여성주의에 몸담 빠지지 않았어요?

어때요, 참 쉽죠?



성폭력이란

성격이란 상대방의 통과 없이 상대방의 성격 자질을 통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복제를 합합니다. 성격 자질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강간이나 성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 성격인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성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대방의 동의'를 단순한 Yes/No 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성별간의 관계 안에서 성폭력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역시 불평등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Yes와 No의 의사를 밝혔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특별한 일이 아니다

- "일상"에 스며있는 성별권력관계

성격적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자 선생과 여자 후배에게 여러 동무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실제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이런 행위는 어둠동무를 당하는 여성에게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강간에서부터 언어성욕까지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성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억압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억압의 내재화는 우리의 일상과 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너의 일상과 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감귤만이 성폭력이 아니다

‘상목’의 개념 안에는 흔히 떠올리게 되는 강간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농담,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아내 구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상대방에게 성관계 불응을 하는 성적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강간음,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간의 경과와 상황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의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서 ‘상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불쾌감과 상처를 강간 정도와 같거나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 대학교 예연은 아니다

배움의 장, 학문의 성지인 대학이라고 해서 성폭력 제재와 예연될 수 없습니다. 대학문화 역시 남성중심적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와 경험이 드러나지는 쉽지 않습니다.

과 반, 동아리에서 고학년 여자생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어학생이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중심적인 사안에 의해 어학생들의 위치가 주어져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그녀들에게 인게가 주는 것은 소외감과 불편함입니다. 연애의 대상, 혹은 여자 같지 않은 여자라는 딱지를 달지 않고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하기가 아까워하는 힘들이 보였습니다.

술자의 문화는 대학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자의 문화 역시 대부분 남성 중심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남성에게 의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이 '놀이기'라는 명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대상화됩니다. 과연 그러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놀이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로 인해 집단 구성원 중 누군가가 심히 불편함을 느끼고 배제된다면 과연 그것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역시 성폭력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학생들, 혹은 수업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수업 중 불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수의 권위라는 이름 뒤에서 혹은 분위기나 재미를 위한 것이라는 말 뒤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적 발언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보통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학원에서 성폭력 담당을 형성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피해의 생존자, 자신입니다.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경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폭력 상담실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총학생회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wooln@yonsei.ac.kr)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성적 주체

성폭력의 경험은 너무나 힘들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성적 고통 속에서는 내 몸이 직접 겪었던 상처를 어떻게 말로 풀어내야 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해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인 동시에 성적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만큼 성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성의 성(Sexuality)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폭력을 말함에 있어서도 민내하고 남아가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자율권에 대한 영역한 침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새터 혹은 과, 반, 동아리 등 대학 생활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냥 침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솟아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상인의 정신을 그런 분위기에서 굳이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요. 내가 분명히 불편함, 불편함을 느꼈으니까요. 심지어는 없었지만,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마음이 편해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은 공동체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만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동생의 선배들과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wooln@yonsei.ac.kr 로 메일을 보내거나 252-3645(주내 3645로 전화하세요. 신고기간에는 시효가 없음)에 시간이 있을 후 시간에 자갈다와 하더라도 주재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2차피해의 심각성

'사람들 말으니까 내가 참아',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게?', '쉽게 알아나는 일인데 그렇게 반응하면 나만 손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하는 2차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모두 생각없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나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게시판 사용이나 채팅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인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쓰는 행위, 성희롱 욕설을 하는 행위 등 사이버 성폭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빌미로 하여 사이버 성폭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www.bj.or.kr/02apply/apply01_02_01.php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피해자 ID, 접수 화면이나 갈무리한 대화 내용(채팅) 등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등을 신고 양식에 맞게 정확히 표기하셔서 신고하세요.

●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황함과 불쾌함에 사의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질지 비관이라도 시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를 보존합니다.

- 사건 후에 씻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곧바로 선부인과 병원에서나 경찰서로 달려가는 게 좋습니다.
- 성폭력을 당한 자리를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증거물(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 사용했던 종이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종이봉투를 사용합니다.

2. 선부인과 병원에서 권사를 받습니다.

-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여부 및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 이 때 발견되는 파나 장벽은 법안서술 및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받아주세요.

3.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학생회관 2층 여학생처 내 성폭력상담실 : 2123-2118 helper@yonsei.ac.kr

■ 한국어성인우회 가족과 청 상담소 : 02-739-1366~7 1d@womenlink.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kswr@sisters.or.kr

4. 신고는 빠른수록 좋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서울 지방 경찰청 여성사 기동대 : 778-8080)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세대학교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성평등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반성폭력 학칙)은 앞의 글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반변히 일어나는 학교의 성폭력을 예방 하여 여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이 시간차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다년간의 개정운동을 거쳐 2004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관한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피해자와 목소리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자치규약> (이하 자치규약)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오리엔테이션과 세터에서 알아낼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2006년 9월 3차 개정되었습니다. 자치규약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생활 속에서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정한 '자치 규약'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규약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나는 말주임에 한 번은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쳤다. 특정 몸무게가 넘지 않으면 안심하여 내려오지요. 특별히 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해도 긴장감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날씬해졌다'라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는 사회에서 '너 살쥔구나'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거든요.



Illustrated by Agneta

44사이즈 못이 어울리는 몸과 스카치신을 입기에 부끄럽지 않은 다리를 이상적인 몸매로 규정된 사회 이 사회에서는 다이어트가 더 이상 건강관리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아름답다'고 규정한 기준에 여성의 몸을 구겨 넣기 위해 다이어트를 강요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여성들을 자기권리도 못하는 계층으로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말쑥, 온갖 이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협박해 되는 '아름다운 몸-미끈한 몸'에 대한 이미지와 규제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강제적인 규범으로서 다이어트를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여성들은 몸무게가 많은 척도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 몸의 다양한 차이를 위계화하여 특정 몸에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여성의 몸을 이에 끼워 맞추고 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더 이상 개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이어트 역시 끊임없이 '바람직한 선택'으로서, 여성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여성주의는 그들이 규정한 아름다운 몸의 기준 자체, 그리고 여성의 몸을 그 기준에 끊임없이 끼워 맞추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제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적으로 아름다운 몸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것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각종 매체와 패션산업의 총수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주술을 깨고 나의 몸을 향하는 온갖 시선과 규율 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나의 몸을 오롯이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속옷 이야기 - 너의 몸을 조이는 이유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슴이 자라는 것은 눈에 띄는 2차 성징 중 하나이며, 어떤 여성들은 신기함으로, 어떤 여성들은 불면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가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미처 생각할 틈이 없이,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구입하여 착용할 것을 강제당한다.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가리를 활보하는 여성에게는

사람들의 낯설고도 놀라워하는 시선이 폭력적이란쯤 붙어있다. 어쩌지 할사와 전조적으로 이루어진 이 답답한 속옷이 그렇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핏줄을 입지 않을 평등권(equality)'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자각이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 신체의 일부일 뿐인 가슴이 덮이고 감추어야 하는 부분, 심지어 신체에 무리를 주는 속옷을 착용해서라도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브래지어를 장기간 착용함에 따라 여성의 몸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브래지어는 갈비뼈와 흉곽을 조임으로써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이나 식도가 막히는 노폐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두 종양의 성장률을 악화하여 암세포환을 방해하고, 유방 통증이나 영육의 원인이 된다.

브래지어가 가슴의 모양을 고정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신체에 모양은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한다. 실제로 남성들이 신체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몸을 조이는 옷을 입는 일은 거의 없다. 몸을 조이는 여성의 속옷들이 당장 옷맵시를 조금 낮게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여성의 몸에는 시간의 갈수록 너는 영향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간다.



Illustrated by marmarocap

몸은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어야 한다거나, 핏줄을 보고 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강요된 속옷입기가 여성에 대한 어떤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을 잘 해야하더라도 몸을 조이는 속옷들을 벗어던지자. 내 몸에 대한 시선에 당당해짐으로써 너의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월경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그것' - 놀랍고, 당혹스러웠던 기억.
교실에 피가 묻어서 불쾌할때 화장실에 가서 빨고는 체육복까지도 갈아입은 기억.
배가 너무 아프지만, 이유는 알지 못하는 잠깐의 어둠을 깨진 기억.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찾아오는 월경.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늘 숨기고 드러낼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월경 중에는 속사나 생 계 아닐까, 문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늘 신경이 쓰이고, 월경통이 있어도 이유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월경통이 못에 묻어가지고 하면 나는 침침하지 못한 여자가 되어버리고, 월경통은 드러내지는 부끄러운 국적 참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월경이 이렇게 숨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월경은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월경 중에는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하고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사회가 문명중에 월경은 부끄럽고 불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요?

대안생리대

생리대 광고들을 잘 훑어 보세요. 모두들 청순한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새하얀'과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리대들에는 새하얗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많은 양의 화학제품들이 사용됩니다. 이 화학제품 중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병무처리 표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제품 때문에 월경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화학제품과 피가 만나서 냄새가 오니까 더 나기도 합니다.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리대들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 연생리대

먼저 연으로 만든 '연생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생리대를 사용하면 화학제품 때문에 생기는 냄새도 없어지고, 노닐도 부종부종합니다. 연생리대를 사용하면 월경통이 없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닐까 걱정되신다고요? 사용에서 따는 생리대를 사용할 때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양이 많은 날에는 안감들 다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연생리대를 사용하면 직접 빨아야 한다는 귀찮음도 있을 것입니다. 연생리대를 뺄 수 있는 장소에 가기 전까지는 가뭇에 보관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내 몸을 위한 이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직접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생리대를 만들고 싶으시거나 연생리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피자메연대 사이트(<http://www.bloodsisters.or.kr/>)를 가보세요 ^^

● 키퍼(Keeper)

키퍼는 보통보통한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작은 접시입니다. 잘 잠은 뒤 침에 삽입하면 키퍼가 월경혈을 받아줍니다. 키퍼는 1시간 정도 착용이 가능하며, 월경혈이 키퍼에 가득 차면 그냥 따라버리고 나서 싹씩 물로 헹군 다음 다시 착용하면 됩니다. 한 번 구입하면 10년은 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 해면(Sea Sponges)

같은 이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면에 차일을 붙여서 쓰는데, 해면에 달린 실처럼 실에서 쉽게 해면을 꺼내기 위한 것입니다. 해면을 물에 넣고 흔적 적신 다음 물기를 고로 짜내고 잘 내부에 삽입하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해면을 꺼내 물로 씻으세요.



생리결석제

대 이상 월경하는 것을 종종 숨기고 혼자만 끔찍 일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수업 못 듣는 것도 억울한데, 아무도 뒷맛하게 못 밝히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영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여대, 영대)에서는 여성고독한 확보 차원에서 생리결석제 제조를 위하여 노력했고 사명운영기간을 거쳐 2007년 2학기부터 생리결석제가 공식 제도화되었습니다. 생리결석제를 통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고통, 숨기는 고통을 이어와야 했던 월경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연세모양 - 학사관리 - 교과/수강 - 생리결석제로 가시면 생리결석제 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시작일자 및의 따라 내도를 클릭하여 결석했던 날을 선택하면 신청내역이 뜹니다. 이제 표 컨트롤러 교수님께 제출하면 돼요. 한 학기에 최대 5일, 1회 2일까지 사용가능하고 그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생리결석제는 숨겨져 있던 여성의 고통이 부끄러운 것도, 감춰야 할 것도 아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여학생으로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폐경? 환경?"

보통 나이가 들어 월경이 끝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폐'는 '말하다,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생명이 다했다는 부정적인 어감의 '폐경' 대신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는 '경'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환경은 몸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폐경'을 하면 '이제 난 어자로서 끝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을 갖고 있어야만 여자라는 생각 - 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제부터는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긴 여정을 마친 몸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월경아, 월경아 뭐하니?

월경,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적으로 배란일은 다음 예상 월경일로부터 14±2일 전입니다. 따라서 월경주기가 30일인 경우에 배란일은 월경 시작일로부터 17일째가 되겠지요. 가임기간은 이러한 배란일과 더불어 정자의 생존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장 짧은 월경주기에서 14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첫날, 가장 긴 월경주기로부터 11일을 뺀 날이 가임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생리주기가 28일이고, 가장 긴 월경주기가 32일인 여성의 경우 월경을 시작한 날로부터 8일째(28-18)~21일째(32-11)가 임신에 가능한 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월경주기는 개인에 따라, 또 개인이 처한 환경과 기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법은 정말 '평균적'일 뿐이지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월경주기를 알기 위해서는 매달 언제 월경은 시작하였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8~12개월 정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월경기간이 7일이고,
가장 짧은 월경주기가 28일, 가장 긴 월경주기가 30일인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 기록

월경기간	☆	1
	☆	2
	☆	3
	☆	4
	☆	5
	☆	6
	☆	7
가임기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예상 배란일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경주기 달력

자신만의 월경주기달력을 만들어보세요

mont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내 몸의 주인은 나! - 성지식 알아보기 -

Talk about my sexuality

가끔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혹은 불쾌하다. 왜?

여성으로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 주체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먼저 부딪히곤 하기 때문이다. '성적 주체, 남성이 요구하면, 성적 대상, 여성은 받아들인다.'라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딪힘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부딪힘 없이는 임신, 낙태, 성폭력 등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력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해보자.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알아보고 했을 때, 자기 성적 결정권 속에서 나를 사랑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몸의 이름을 알리기

성적인 주체로서 나를 아는 첫 번째는 내 성기의 명칭과 구조를 아는 것이다. 몸속에 있는 허파, 위, 심장, 위치는 알면서 왜 성기의 구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대음순, 소음순, 음핵, 질입구 등 성기 구조의 명칭을 아는데 '그거 입잖아'라고 알려주려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보자.

자위행위

남자는 95%, 여성의 80% 가량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별로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다.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오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숨겨져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위를 통하여 여성으로서 독립성과 자기 의존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적인 욕망의 충족 자체를 중요한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성적욕구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다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욕구'라는 것이 사회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성욕은 그와 반대로 사회화 과정에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쉽게 용인 받는다. 따라서 남성의 성욕은 본래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적욕구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질주름

차츰차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츰'이란 '딱'이 아니라 몸속으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입구를 보호해 주는 근육조직이며, 신축성이 있는 주름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주름'이라고 부른다. 차츰이란 순환 하체운동기가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며, 첫 성교시 차츰이 파열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다. 질주름 파열시 피가 나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0% 정도이며, 질주름은 심한 운동이나 외부 충격을 통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

피임 방법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사이라면, 성관계 후 여성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건강상태와 느낌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피임은 성관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 콘돔

남성의 성기에 고무막을 씌워서 정액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간단하면서도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고,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약국이나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00~6000원 정도에 10개들이 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 피임약

● 먹는 피임약 : 여성호르몬으로 만든 약으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거나 자궁 경관을 콘크리트처럼 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신률 막는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매일 먹어야 하고 두통, 구토감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사용방법은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생리 첫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21알을 먹고 7일을 쉬는 방법이다.

● 붙이는 피임약 : 몸에 붙이는 호르몬 복합제로, 1주일에 한 장씩 3주 동안 붙인 뒤 1주를 쉬는 방법. 먹는 피임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적지만 한 달분이 3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2004년 일부의 국내에 시판되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사후피임약 :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과도 100% 보장되지 않고 호르몬 피임약을 한 번에 몇 십 알씩 먹는 생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야 한다. 호르몬을 과다 투여하는 것으로 몸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성상 불거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 질 삽입제

성관계 전 질 속에 집어넣어서 질 속에 들어온 정자를 죽이는 방법. 값싸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관계 10~15분 전 질 속에 넣은 뒤 흘러내리지 않도록 누워서 성관계를 해야 하며, 성교 후 6시간 동안은 질을 씻지 않아야 한다.

● 패시블

여성들이 질 속에 넣고 사용하는 것으로 정액이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콘돔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지만 낡는 방법도 있고 한년에 2000원 정도로 콘돔에 비해 무척 비싸다.

● 자궁 내 장치

천공 행위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하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 기타 피임 상식들

● 한 가지 피임법만으로는 100% 임신 예방을 할 수 없다.

어떤 피임법도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란일을 정확히 알고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란일을 계산하면 피임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기초 체온법(배란일) 계산이 좀 더 높은 것을 이용한 피임 방법

월경 주기법(배란일) 계산하는 방법

정액 관찰법(배란일)에 나오는 정액으로 배란일을 아는 방법

● 피임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는 남자가 삽입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피임도 함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성욕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이해와 성관계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월경기간 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주는 월경이나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생리 중에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 출혈을 생리라고 오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자는 몸속에서 5일 가량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리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생리 중 성관계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한 날이 배란일이거나 배란일까지 정자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임신이 된다.

●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정자는 사정할 때 혼 이나 성관계 중 조금씩 나오는 분비물인 무피사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질외사정은 남성들의 조루 원인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줄거는 성관계를 위해서도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 성관계 후 곧바로 씻는다고 해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빨리 씻어도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빠를 수 없는 데다, 질 속 깊이 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복용 중단 후 바로 임신이 가능하다.

총여학생회실 -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율형> 21대 총여학생회

앞에서 지혜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율형>의 소개 및 지혜와 친하게 지내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든 마음 편히 놀러오세요! 총여실 안에 여성학 도서들을 보고 빌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인 페미니스트도 있어요. 총여실에서는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요. 오셔서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들도 함께해요! 총여학생회실은 학생회관 3층 왼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 02-2123-3645

e-mail : woodm@yonsei.ac.kr

홈페이지 : web.yonsei.ac.kr/system

성취동·성취욕 상담실

성취욕 상담실은 '성취적 사고 및 성취적 피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 상담을 통해 피폐자의 마음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성취적 시간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 상담실은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 02-2123-2718, e-mail : helper@yonsei.ac.kr

홈페이지 : http://www.yonsei.ac.kr/~helper

여학생지원센터

여학생지원센터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강연을 주최하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여학생 휴게실 등의 시설 문턱도 할 수 있고, 여러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여학생지원센터는 학생회관 2층 성취욕 상담실 바로 옆,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전화 : 02-2123-2136, e-mail : women@yonsei.ac.kr

논지방

논지방은 본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1층짜리 아담한 여학생 전용 공간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쁜 공간입니다.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고, 친구들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논지방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다만 개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 안 되어서 안타깝네요.

여학생휴게실

신대-별관 지하에 학생자차실 맞은편에 있어요.

신화대-연희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문대-외출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치과대-치과대학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법대-법학관 지하 1층 복사실이 있는 복도로 가다보면 대형강의실 옆에 있습니다.

공도-6층 자판기 옆에 있어요.

학관-3층으로 올라와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총여학생회 바로 앞방입니다.

이과대-과학관 1층 왼쪽에 있는 미술실 맞은편에 있어요.

외과-외과대학 건물 지하에 있어요.

신대-신학관 1층 엘리베이터 꼭 화장실 근처에서 안 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공대-계정공학관 지하 복사실 바로 앞방입니다.

신공도-3층 올라온 화장실 공간부터가 펼쳐지 되어있는 있어요.

수유실

신공도-4층 도양관 화장실 옆에 있어요.

논지방-사당선 논지방 안쪽의 이문이 문을 여세요.



• 휴식을 하고 난 카페나 프랜차이즈는 꼭 자주고 가주세요.

• 내가 바자회로 쓰는 자판기라는 말이 논지방 옆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 논지방의 역사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상층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성 화장실 안에만 위치해 있는 경우라든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낮은 계단으로 휠체어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시각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점자 안내판, 점자 블록이 있는 건물들 같은 것이 더 빠른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 학교에서 과연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게다가 중앙도서관, 백강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의 정문이 여닫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 물방)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용 경로를 중심으로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 경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저희 노예도 이렇거나 하슬함 학교 환경입니다. 2주에 한번 이루어지는 학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확실히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열성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무상성 존제로 보기 때문에 상층 분리되기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1인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관 확보, 화이팅

● 공학원내 연구 센터

건물 앞 오른쪽으로 경사 진입로가 있으며 그 바로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제3공학관(공대C관)을 바라보는 옆면에 경사 진입로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6층의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실제 입구가 좁아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불편합니다. 지하 1층 식당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음식이 주문하고 받을 때 눈빛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식당 리오델링 이후에는 자리가 좁아져 불편합니다.

● 제1 공학관 (공대A관)

건물 정문에 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있으며 여기서 모든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는 강의실과 공대 도서관은 정문에서 들어갈을 경우에는 낮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좌측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상원 6층 강의실의 경우 같이 복잡할 뿐 아니라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이용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항상 사다리 등의 물건이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 제2 공학관 (공대B관)

건물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곳은 제1공학관이나 제3공학관에서 이동하려면 낮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하 1층 입구에는 경사로 또한 없습니다. 제8호출 강의실은 제1공학관 건물 뒤면에 있는 입구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경사로가 좁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이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건물에는 장애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 제3 공학관 (공대C관)

공학관 쪽으로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제1공학관과 제3공학관 사이에 있는 교직원 전용 주차차장으로 들어간 전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인도가 따로 없어 위험합니다. 운동장 쪽 경사로에서 진입하여 서클랜드를 지나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모든 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좁은 편입니다.

● 과학관 (이과대학)

건물 오른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 입구가 있습니다. 단, 이 문은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합니다. (장애 학생은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1호 강의실과 대강당이 있는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은행 CD기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상층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옆으로 좁은 편이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앙 도서관 (제1중도, 구중도)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단, 경사로가 주차장 쪽으로 나 있어서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다.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자물문이 있어 도서관 내부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료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열람실 중 장애인 열람석은 1층에 2석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3층에만 있습니다.

● 학술 정보원 (제2중도, 신중도)

구중도를 통해 지하1층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과학관에서 들어올 때 오른쪽으로 경사 진입로가 있어 2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층 분리된 장애인 화장실이 각 층에 존재하지만, 여성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 대강당과 컴퓨터 이용공간 중 다 색선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이 지정되어 있지만, 여닫이 문을 쓴 일반석과 다를 바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특히 컴퓨터 이용 공간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리프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현행 책상과 칸막이가 있는 형태에서 자리가 비좁을 뿐 아니라 구석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까지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데스크는 2층과 3층으로 나뉩니다.

● 실상관 (생활과학대학)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하며, 장애인 화장실은 지하와 1층에만 있습니다. 예전한 대석의 바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에는 다니기 위험한 공간입니다.

● 백강관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지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문에 자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으므로 2층으로만 1층(정보통신학 등) 3층, 5층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갔

2층 출입구(정문, 후문), 1층 출입구, 건물 뒤편에 있는 3층 출입구, 5층 출입구를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박정관 1층에는 사생대장(학생휴게실)과 여름 태사각 장애허성을 위한 장악실이 있지만 장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 불꽃이 정문과 2층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허성 화장실이 여남 구분되어 학우에서 가장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정보통신채널로써 대어하는 곳, 컴퓨터실이 있으며, 3층에는 학사지도교수님들의 방, 5층에는 대학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 광복관 (법과대학)

지하 2층 주차장과 신과대학 병행 1층 입구에 경시 진입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용 운행합니다. 지하 1층에 장애인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무거운 아들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 백주년 기념관

건물 왼쪽으로 헬퍼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주년 기념관 중 백주년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강당은 계단사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 학생회관

건물 뒤편으로 가면 1층 로비로 들어갈 수 있고, 복암문으로 나가면 부속생과 고졸생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 지하에 양쪽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입구는 컨디션 식당과 화장실, 여름 다용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입구로는 온천, 우체국, 생활실, 술가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술가방은 통로가 좁아 헬퍼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헬퍼를 탄 경우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춘 학생회, 춘어학생회, 동아리실 등 많은 학생 이용 공간과 보건실, 학생회 등 학내 편의시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1층 화장실

의 경우 화장실 각 칸이 매우 좁으며 각 칸 입구에 책이 있으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루스채울

대강당과 루스채울 사이는 안전한 경사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뚝문으로 가면 교육실이 나옵니다. 앞문으로 가려면 학생회관 뒤 언덕길을 올라가서 다시 앞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곳에는 재물을 담당하는 교육실이 있는데, 장애허성이 학기 전체 재물 처리 배정을 문의하면 자신이 편한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강당

건물 오른쪽 뒤편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에는 재물을 운반하는 대강당 안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강당은 내부가 계단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불편하며, 경사로 입구가 장거를 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루스채울 교육실이나 대강당 발라실에 이용하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대강당 큰 계단 양쪽에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 와솔관 (문과대학)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으며 경사로 바로 옆에 장애허성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솔관 양쪽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층과 2층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상설 구분 없이 단 하나씩 있습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려서 헬퍼 리프트를 이용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단식 경락실이 있어, 들어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강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을 헬퍼를 타고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가장 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와솔관 4층과 종합관 3층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문대 학생회실 및 반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 종합관

건물 오른쪽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단, 경사로가 매우 가파릅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3층의 경우, 위당관 4층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지만, 매우 좁고 계단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외부로 나옵니다. 이 외부 통로는 종합관과 위당관 사이에 가파른 경사 차로로 이어져 있으며, 종합관 3층 뒤편 주차장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 위당관 (문과대학)

건물 왼쪽의 경사로를 통해 1층으로 갈 수 있으며, 지하 입구에도 경사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운행하지만,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헬퍼 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와 같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매점 겸 식당인 점점점의 경우 이용 통로가 매우 좁습니다.

● 연희관 (사회과학대학)

지하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정문 왼쪽에 있습니다. 4층을 제외한 모든 계단과 복도와 화장실이 장거불록이 있으며, 강의실은 왼쪽 복과 손잡이 옆에 장거 단편이 있습니다. 강의실 문 옆 벽면 150cm 높이에 의자대를 위한 강의실 번호 확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장애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지만 입구가 좁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헬퍼를 탄 경우 지하 1층만 사용 가능합니다.

● 빌딩승리관 (사회과학대학)

1층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층 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여남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며, 아들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청소도구 창고로 같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 성경대 본관/별관

건물 자체가 연어 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본관의 경우 모든 입구 주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실에 접근 용이합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흡수층/복수층으로 운행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면 지하2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지하층과 1층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별관의 경우 정문 출입 계단 오른쪽에 지하 1층으로 통하는 경사 진입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전용 운행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 노천극장

헬퍼를 이용하여 들어갈 수는 있으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무대 양쪽이나 관객석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장 앞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앞이 10cm 책이 있는, 도저히 상식에서 이해 불가능한 사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음악대학

입구에 경사로가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노천 극장 앞을 경유하여 건물 뒤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세바스, 건초대 북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강당 오른쪽 계단에는 30여 계단이 존재합니다.

● 건초대학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운행합니다. 1층과 3층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 어디요?



영화를 보려고만 하면 주구장창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는 너무도 불편한 장면들. 실감 없다는 성폭력 장면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타자화도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나머지 좋은 영화 한편 보다가 하는 마음은 딱 사라지고 구린 장면 속까지 끝나고 마음 추스려야 끝나고 재미도 없고

이런 때 필요한 건 뭐? 종여학살에서 추천하는 보석 같은 영화들이 어디 한번 볼까요? 100% 안심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고인척이 먼저주고, 거부당적으로 짜여져 있는 영화관을 조금이나마 뒤집어 내는 재미있는 영화들이 여기 있습니다!

- 헤드윅 (Hedwig And The Angry Inch, 2000)
- 천하장사 마돈나 (Like A Virgin, 2006)
- 안토니오스 라만 (Antonia, 1995)
- 메종 드 히미코 (メゾン・ド・ヒミコ: La Maison De Himiko, 2005)
- 내 남자의 유령기혼 (Der Fischer Und Seine Frau, 2005)
- 가족의 탄생 (Family Ties, 2006)
- 블루투에서 아침을 (Breakfast On Pluto, 2005)
- 나의 장밋빛 인생 (Ma Vie En Rose / My Life In Pink, 1997)
- 처음 만나는 자유 (Girl, Interrupted, 1999)
- 에고리움2 - Memento Mori (1999)
- 우리 학교 (Our School, 2006)
- 다섯 개의 사선 (If You Were Me 2, 2005)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7)
- 디 하우스 (The Hours, 2002)
- 용사방치 못한 자 (The Unforgiven, 2005)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ジョゼと虎と魚たち: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2003)
- 고양이들 부탁해 (2004)
- 싱글즈 (2003)
- 텔마와 루이스 (Thelma & Louis, 1991)
- 마니애크 (Keiner Liebt Mich / Nobody Loves me, 1994)
- 밴디츠 (Bandits, 1997)
- 롤라 런 (Lola Rent / Run Lola Run, 1998)
- 판타스틱 소녀 백서 (Ghost World, 2001)
- 8명의 여인들 (8 Femmes / 8 Women, 2002)
- 거북이 시스터즈 (2003)
-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 Madre Las Mujeres / My mother Likes Women, 2002)
-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 2000)

여성주의 도서 소개

여성주의가 뭐야? 호기심이 새록새록 피어난다면



『별 속의 여성주의』, 박민규사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여성만을 위한 학문일까? (행복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다양한 사람들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로 활용하는 억압 기제에 맞서는 일상 속의 실천이자 운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되게 될 지도 모른다-Feminism Is For Everybody!



『철학인,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페미니즘의 도전)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권력관계와 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차별과 억압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권력관계를 비틀고 뒤집는 (페미니즘의 도전)은 통쾌하지만, 한편으로는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성주의를 접한 후 내 안에서 솟아나는 더 많은 의문과 고민을 풀어낼 언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력 추천



『연이 번개처럼, 복수열리다』 강외, 두번째, 동행

(복수열리다) 강외는 계급, 세대, 인종, 민족, 국가 등 다양한 맥락을 통해 여성의 복수열리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복수열리다에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시도하는지를 탐색한다. 복수열리다에 대한 억압 기제를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대안적인 성문화의 방향까지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연두화살표, 연두화살표, 결혼』

연두화살표 웃고, 울고, 분노하고, 함양고, 다시 거친 하루하루를 또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연두화살표의 이야기들에 열정구치해 공감하다보면 여성주의는 나의 삶을 살롱하는 언어를 갖게 하여, 또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일상의 여성주의를 속살거리며 풀어내는, 읽고 나면 친구들과 마음껏 수다 떨고 난 것처럼 가슴이 후련해지는 책



『영 페미니스트 기록집』 달과 감을,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행

80년대 후반 내내에서 활동한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호명하며 페미니즘을 삶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풀어 쓴 책이다. 대학 내의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와 다양한 구성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쾌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이슈들을 바라본 책을 읽고 싶다면



『진보와 여성주의』 권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진보 운동은 다양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억압과 문제제기하는 운동으로서 진보 진영은 바뀐 한 이나와 안에서 존재하는 권력관계 역시도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빠는 필요없다)는 실제로 진보 운동은 여성을 끊임없이 배제하거나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진보 진영 내의 가부장성을 성찰하는 동시에 여성주의

운동이 기존의 진보 운동 지형을 바꾼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여성주의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성애에 여성들이 직접 쓰는 자신들의 인생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잘 드러내며 보여준다. 성매매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의 허구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나 개인들의 삶의 구체성을 잃지 않는 시인의 균형 속에서 성태를 분석한다. 차이는 국제적 차원의 자본주의 군사주의가 일대지를 통해 여성과 몸을 대상화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속에서의 행위 주체들을 드러내며 있다.

우리의 일상,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신학**” 주디스 버틀러, 앤드 로버트, 문학동네

여성주의와 관련한 책들을 어느 정도 접했다면, 보다 심화된 고전을 위해 앤드 로버트를 찾아 보자. 저자는 기존의 석스앤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페미니즘의 주제로서의 여성이라는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이 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어느 경계와 이분법에 도달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페미니즘의 가능성 새롭게 상상하게 한다.



▶한민정, 정치인 외 성취력을 다시 본다
 (성취력을 다시 본다)는 성취력 시간이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들이 아니라 구조화된 성취관행과 관계를 반영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여성인간의 삶에서 성취력 사건들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를 이야기한다. 또한 이 책은 성취력을 구성하는 네 가지 내면적 구조로써 '현관성'이 남성중심적 삶에서 탈피함으로써 구성된 개인성을 보여주고, 내면적 구조가 개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한서삼아, 다이어트의 상징적 확산**
다이어트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몸의 관리에 대한 분석 그동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여성들의 그리고 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즉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기던 '다이어트'가 사회화으로 접한 규율이자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이 책이 보여 준다.



● 김은실, 여성이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몸의 재현 몸 기구기, 성애, 출산과 낙태 등의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이 몸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시대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접근하는 데 매우 좋은 책이다.



『나아나 존슨의 말』이라는 만화, 책도
 삼십장에는 크리스티나 패넌버그라는 강박증이 대머리가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거부당 시에는
 는 머리의 고통, 자기의 욕망과 강박을 얻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통적인 감각이 삼십장과
 관련이 있다. 삼십장대를 떠나보는 것은 삼십장대를 나의 삶에서 '살고 마라'라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 삼십장대가 강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 문제와 대머리 자식 못박은 강박을 처리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강박을 직접하면 어느 한쪽과 그들이 어울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 존중을
 애정 없이 자신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 책은 삼십장대를 찾아내고 떠나보는 과정을 통해 나의
 그 운을 통해 내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고통과 싸움이 아니라 치
 료와 발달을 돕기 위한



41 조순경, 노동과 해미나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 논문집으로 여성노동을 해체하는 기존의 노동개념을 해체하는 등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가-아” , 김현진 지음/정하연실 그림, 오늘도 난 외롭다. 문장자식하루스
가게를 길음, 다른 호텔, 시선 아래에 거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면에 담긴 작가는 이 이야기
가게를 스스로의 실존을 통해 보여 준다. 앞과 뒷면 뒷면은 구멍이 수없이 깊어진 장면에 대한 본
건으로 진정한 이 사회를 통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아이의 시선과 시선을 통해 대한 연
성의 삶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장면에 담긴 시선을 통해 장면에 대한 고집만으로도 뒤떨어진 이 사
회와 모습을 가진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를 향해, 일상을 향해 ‘외로’ 하는 장면에 주체적인
목소리라는 중간 중간에 있는 장면에 있는 말만으로도 만능으로 한다.



“4-7” 정치한설, 얼마, 외로운 거, 그안하고 법, 책자, 한가래들만
 만화가 장자언이 쓴 ‘한가래들만’이란 책은, 나라와 함께 한가래가 가정을 꾸려가는 일상을 그려낸 책이다. ‘장자언’은 ‘흔치 않은’이라는 어색한 한자어를 한가래의 시인으로의 달리, 작가는 그다지 실용형에
 하는 말의 존재에 감사하며, 예전에는 눈으로 말의 생명을 바라보다. 그리고 먹점을 보아주지도
 않고, 물론 동정과 연인을 바라지도.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하는 보는 이로, 하에금 아주 면하고 없게 공
 간을 뽐내며 한다.



수준이 D, 엘래스, 이미지와 한식 AI의 여정들, 도하나의문화
기후정체 사해에서 여정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남성이 기록에 맞게 이야기화된다. 이 책은 페미니즘
문화이론 개괄서로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에 비판하여 초기 여성주의자 연구에서부터 성소속성
개념, 기술과 여성, 고대그리스인 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소개하여연계해 정리, 평가하고 있다.



우아한 아름다움 최정무 외. 위험한 여성-한국의 민족주의와 젠더. 삼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저자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여성 12명이 논문, 보고서, 포스터에서 명
문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통해 '한국의 민족주의와 젠더'의 문제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젠더』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슬

남성중심적인 기술과 자본은 끊임없이 '개발'을 요구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간
여성들은 개발 논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살아남기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외치는 것이 마
나리 개발의 정당성 그 자체에 문제제기한다. 저자는 또한 개발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근대의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살아남기 방식을 모색한다.



『카타 오조영의,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창작과 비평사』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술물 담담해온 과학에서의 객관성과 가치중립성
이라는 가면을 벗겨낸다.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과학, 기술, 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
에서의 여성 배제의 역사를 보여준다.

여성주의 문학 작품을 읽고 싶다면



『토니 모리스, 발라드, 물방』

노예제와 성별 억압이라는 이중적인 억압에 시달려온 흑인 여성이 이야기로 객관화된 남성 언어가 어
닌 그녀의 경험을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여성이 언어로 사울된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서들에게
대물림하기 싫었던 여성의 비극적인 경험은 충격과 분노, 슬픔으로 다가온다.



『머거트 애트우드, 시애틀에서, 황금가지』

『시애틀에서』는 여성의 몸과 색수질에다가 가부장제 공동체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현실이 극단적으로
치밀한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아닌 재산성
을 위한 기계로서 여겨지는 여성의 몸, 애정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 의무로서 요구되는 강제적인 섹스
이 모든 공허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치른 현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성이 진정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몸과 색수질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모든 책들은 학문 원리를 문용에 문용 열고 들어오면 '젠' 하고 보이는 페미니티에서 만나볼 수 있
습니다.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양장 도서들이 백곡씩 들어갈 멋진 공간, 페미니티에서 만나요! 책을 빌리러 오
실까지 오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도서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연계근지 참여학생지원(02-3123-3645)로
연락 주세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연자연』에

참여해주세요!



여연자연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대체입니다. 이곳에서는 학내 다양한 자치단위들이 한자리에 모
여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고민들을 풀어냅니다. 여기서 '여성문제'를 고민한
다는 것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가부장성을 고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별 권력, 내성적인 권력,
이성애/비이성애자의 권력 등과 같이 누군가를 '정당한 사람' 혹은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그를 소
외시키는 일상 속의 권력관계를 고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학 사회 역시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는 공간이기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가부장적 공식을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연자연은 학생 자치단위의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새대가를 찾아하면서 그 연
동이라는 남성중심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보다는 자치규약을 중심으로 반성토의를 시도합니다.
공동체 구성을 모두가 자치규약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회를 만들거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적 상황들을 재밌는 영상과 시로써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성
폭력에 대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할 때도 학내, 학외는 새대가와 단체들이 함께 여연자연으로서
그 연 동아에서 즐겁게 생활하기 위한 고민을 담아 공동체를 꾸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인공을 꾸리는 대동세 기간에는 생활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들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연자연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거둔 고민들을 들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살
전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각자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대체를 지향합니
다. 이렇게 치밀하고, 연 동아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는 않지는, 그것은 왜 그런지 물어볼 때
소외된 이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능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평등한 공동체로 치밀로 생
겨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함께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 여연자연에서 함께 만들어가세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yeeyeon.cyworld.com



